

최저임금 빌미... 술값 암체인상 '소주 1병 6000원'

서울지역 소주 최대 1000원 올라
외식물가 19개월만에 최대 상승
편의점 마른안주류도 최대 20% ↑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서민과 직장인들이 즐겨 마시는 소주와 맥주 가격이 오르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평년대비 증가율이 높은 16.4%이다. 당연히 소상공인들에게 인건비 상승 등으로 요인으로 인해 부담이 가중된다. 하지만 직원이 없는 곳에서도 너도나도 주류와 안주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 한편 주류업체의 출고가는 지난해와 똑 같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지역 식당에서 소주와 맥주 가격이 최소 500원에서 최대 1000원가량 올랐다. 마른 안주를 비롯한 안주류도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



/픽사베이

했다.

서울 강남권에 있는 식당에서 소주 한 병의 가격은 4000원에서 5000원 사이였지만 최근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됐다. 강북권 식당에서도 3000원에서

4000원 사이 가격이 최소 500원 최대 1000원까지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이 오른 이유는 주류업체의 출고가 인상이 아닌 식당에서 인건비 부담 때문이다.

서울시 강남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박모(34)씨는 "소주가격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올랐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알바생들의 시급이 오르면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이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지난해 말부터 생필품을 비롯한, 라면, 햄버거, 커피 등의 가격이 지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외식물가 상승 폭은 2.7%로 1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1월 상승 폭이 2.8%로 더 커졌다. 2월에도 2.8%의 상승 폭을 유지했다.

소주와 맥주 가격만 오르게 아니다. 안주 가격도 올랐다.

원자재값과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안주 가격을 올렸다. 지난해부터 가격이 급등한 오징어 등 마른안주가 대표적이다. 인상폭은 1000원에서 2000원 사이다.

서울시 종로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김모(45)씨는 "오징어 가격이 지난해와 비교해 많이 올랐다. 가게에서 판매하는 오징어 안주 가격을 1만5000원에서 올해 초부터 1000원 올렸다.

안주 가격 상승은 '혼술·홈족'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편의점 CU(씨유)는 최근 마른 안주류 24개 품목의 가격을 최대 20%가량 올렸다. 대표적으로 '짬오랑'이 3500원에서 4100원으로, '숯다리'는 1500원에서 1700원으로 각각 600원, 200원 상승했다.

숙취 해소 음료도 가격이 올랐다.

국내 1위 숙취 해소 음료인 CJ헬스케어 '컨디션'의 주요 제품이 이달부터 500원 인상했다. 핫개컨디션, 컨디션레이디의 편의점 판매 가격은 각각 45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랐다.

/박인용 기자 parku7854@metroseoul.co.kr

MB 혐의 인정해도... 檢, 구속영장 신청할 듯

혐의 20여개... 14일 오전 조사
'불구속기소' 형평성 등에 어긋나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등 혐의 인정 여부에 관계 없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14일 오전 9시 30분 이 전 대통령을 불러 자동차 부품사 다스 비자금 조성 등 혐의에 대해 캐물을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공직선거법·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횡령·배임 등의혹과 관련해 20여개에 달할 전망이다. 그는 국가정보원과 삼성 등 민간기업으로부터 총 110억원대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구속기소) 등이 국정원에서 최소 17억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상납받는 데 관여한 '주범'으로 규정했다.

또한 검찰은 삼성전자가 2007년 11월~2009년 3월 대납한 것으로 조사된 다스 소송비 60억원을 이 전 대통령에게 제공된 뇌물로 본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소유로 의심되는



11일 서울중앙지검 모습.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사를 사흘 앞둔 이날 검찰은 불법 자금 수수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스가 300억원대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잠정 결론 내리고 소명을 요구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이 이 전 대통령 조사 이후 구속기소를 택할 지 여부가 관심을 끈다. 당초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인정할 경우 검찰이 불구속기소를 검토하지 않

겠느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범조계에서는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관련 혐의로 구속된 측근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데다, 혐의 인정은 곧 방어진 포기를 뜻하기 때문이다.

범조계 한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검

찰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게 될 경우, 법정에서 다툴 것도 없이 형량만 정하면 된다"며 "혐의 인정하고 불구속기소나 구속기소나 따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자들이 구속된 상태에서 이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사건의 최정점에 있다고 지목된 이 전 대통령을 구속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 공범 모두 구속기소할 명분이 사라진다는 설명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3월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달 31일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법원이 구속 사유 가운데 범죄 사실 다툴 여부와 증거인멸 우려 등을 따져 이 전 대통령의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군 댓갈 수사' 축소 지시 의혹을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범종 기자 joker@

외국인투자 200억달러·일자리 1만개 창출

산업부, 외국인투자촉진시책 의결

정부가 올해 200억 달러 이상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 일자리 1만개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0일부터 27일까지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열어 '2018년 외국인투자촉진시책'을 심의·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외국인투자촉진 시책에서 올해 외국인투자 목표로 '4년 연속 200억 달러 이상 유치, 양질의 일자리 1만

개 창출'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중점과제로 ▲고용창출·혁신성장을 위한 유치기반 구축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투자유치 양적·질적 고도화 ▲외국인투자 친화적 환경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외국인투자 유치기반 구축을 위해 고용·신산업 분야 투자지원을 확대하고 자유무역·경자구역 등 경제특구를 개편해 핵심기능별 차별화된 정책지원으로 4차 산업혁명 허브 육성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신산업지역은 신기술기업

유치를 특화하고 서비스지역은 관광 등 고부가 서비스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투자유치 고도화를 위해 바이오, 반도체, 자동차,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12대 유망 신산업 분야를 집중 유치하고 국내외 기업 매칭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시스템 고도화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한 맞춤형 매칭 지원 및 채용박람회 확대, 우수 외국 교육·연구기관 유치 등 정주여건 개선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디자인 인력 지원

산업부, 올 40개 사업 선정
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 접수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2018년 중소기업 디자인인력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디자인 활용률이 저조한 중소기업 등에 맞춤형 디자인 인력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56개사에 180여 명의 디자인 인력을 지원했다.

올해는 지원 기업분야 및 지원 디자인 인력 범위, 급여기준 등을 개편해 보다 다양한 기업과 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 중심에서 사회경제적 기업, 스타트업 등으로 확대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력직뿐만 아니라 신입직 분야도 신설해 지원한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일부 직급의 최저 급여기준도 상향 조정했다.

올해 사업에는 40개를 선정할 예정이며 기업 선정 후 개별 기업이 원하는 분야의 디자인 인력을 별도로 선발해 매칭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 및 인력에 대해서는 디자인 인식 제고 및 역량강화,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제고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www.kidp.or.kr)를 참고하여 이달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많은 글로벌 기업과 대기업들은 디자인을 기업 성장을 위한 혁신전략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나 우리 중소기업들의 디자인 활용률은 16%로 선진국 대비 1/3 수준"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디자인을 경험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원 인력의 정규직화에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참가자 모집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2일부터 28일까지 '2018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는 창업을 희

망하는 청년들에게 현장경험 습득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기업에는 잠재적 사업 파트너 발굴 기회를 지원해 멘토-멘티 간 협업 구조를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모집대상은 인턴의 경우 농식품 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며 멘토기업은 전년도 매출액 1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의 농식품 분야 기업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협약을 거쳐 3~5개월간 주 24시간의 인턴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세종=최신용 기자